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⑫

以恭敬故 不敢毁傷 以屈伏故
이공경고 불감훼상 이굴복고
無令縱逸 若能惡情永滅 善念恒存
무령종일 약능악정영멸 선념항존
雖不現相 常爲禮拜 其相者則身相也
수불현상 상위예배 기상자즉신상야
欲爲令諸世俗 表謙下心
욕위령제세속 표겸하심
故須屈伏外身 現恭敬相
고수굴복외신 현공경상
用之則現 捨之則藏
용지즉현 사지즉장
擧外明內 性相應也
거외명내 성상응야
若復不行理法 有執外相
약부불행이법 유집외상
內則迷故 縱於貪嗔癡
내즉미고 종어탐진치
常爲惡業 外則空顯身相
상위악업 외즉공현신상
何名禮拜 欺賢誑聖 必不免於輪廻
하명예배 기현광성 필불면어윤회

공경하므로 헐뜯지 않고, 굴복하므로 방종함이 없다. 만약 악한 감정이 영 사라지고 착한 생각이 항상 존속된다면 비록 겉모습으로 나타내지 않아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 된다. 모습(相)이란 육신의 행위다. 세속적인 법을 따라 마음을 낮춰 겸손함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겉모습을 굴복시켜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씀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는 것이니, 겉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성품과 겉모습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이법(理法)을 행하지 않고 겉모습의 예배만을 집착하고 마음대로 탐·진·치에 놀아나며 악업을 짓는다면 이는 겉으로 거짓 흉내만 것이니 어찌 예배라 하겠는가. 성인과 현인을 기만하는 짓이니 반드시 윤회를 면치 못할 것이다."

又問曰 溫室經 云洗浴衆僧
우문왈 온실경 운세욕중승
得福無量 若有觀心 可相應不
득복무량 약유관심 가상응부
答曰洗浴衆僧者 非說世間有爲之事也
답왈세욕중승자 비설세간유위지사야
此假諸事 譬喩眞宗 隱說七事
차가사자 비유진종 은설칠사
其七事者 一者淨水 二者燃火
기칠사자 일자정수 이자연화
三者澡豆 四者楊枝 五者淨灰
삼자조두 사자양지 오자정회
六者酥膏 七者內衣 用此七法
육자소고 칠자내의 용차칠법
沐浴莊嚴 能除三毒無明垢穢
목욕장엄 능제삼독무명구예

물었다. "〈온실경〉에 보면 '여러 스님을 목욕시켜주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하였는데 오직 관심(觀心)만 해도 마찬가집니까."

대답했다. "스님들을 목욕시킨다 하는 것은 세간의 유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상의 일을 빌려서 참진리를 비유한 것이며, 일곱 가지 일을 견주어서 말한 것이다. 그 일곱 가지는 첫째 맑은 물이고, 둘째 불을 피우는 것이고, 셋째는 조두(澡豆)요, 넷째는 양지(楊枝)요, 다섯째는 깨끗한 재(灰)요, 여섯 째는 우유 기름이며, 일곱 째는 속옷이다. 이 일곱 가지의 법을 사용하여 목욕하고 장엄하면 삼독과 무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다.

其七法者 一者法戒 洗溫愆非
기칠법자 일자법계 세온건비
猶如淨水 去諸塵垢 二者智慧
유여정수 거제진구 이자지혜
觀察內外 猶如燃火 能溫淨水
관찰내외 유여연화 능온정수
三者分別 揀棄諸惡 猶如澡豆
삼자분별 간기제악 유여조기
能淨垢 四者眞實 斷諸妄語
능정구이 사자진실 단제망어
猶如楊枝 能消口氣
유여양지 능소구기

일곱 가지 법이란 첫째는 법과 계율이다. 잘못된 허물을 따뜻한 물에 씻기를 마치 맑은 물이 더러운 때를 씻듯이 함이다. 둘째는 지혜이니, 내외를 관찰하기를 마치 타는 불이 맑은 물을 더웁게 하듯이 함이다. 셋째는 분별이니, 악을 골라 버리기를 마치 콩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음이다. 넷째는 진실이니, 온갖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양치질하여 입 냄새를 없애듯 함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겉의 예배통해 마음 밝아짐은 성품과 겉모습 서로 같기 때문

'巨' 큰 스님과의 대화

혜경스님

무설정사 조실

'선(禪)' 혹은 '화두(話頭)'라는 말은 이제 일상어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선'을 연결짓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21세기의 대안은 선'이란 말 또한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왜 선이 21세기의 대안이며 그 구체적 형태는 이것이다' 하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소문 같은 전망만 넘쳐날 뿐, 현실과 소통하는 삶의 원리로서의 힘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방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 출가 수행자에만 국한시켜도 결제 대중은 10퍼센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을 해설한 책이나 이야기는 넘친다. 그야말로 '구두선(口頭禪)의 황금기'라는 자조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기(氣) 수련이나 서양에서 역수입된 이봐타 수련 따위를 행하는 사람들은 급속히 늘고 있다. 선을 표방하는 한국 불교로서는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흔히 불법 수행의 근본을 말할 때, 신해행증(信解行證)과 교선일치(敎禪一致)를 든다. 하지만 선불교의 입장에 서게 되면 교외별전(敎外別傳)이나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만 도드라지게 되고, 그것이 극단의 형태를 취할 때, 교학은 버려야 할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을까. 특히나, 선의 중흥이 운위되고 그와 함께 간화선(看話禪)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즈음, 진지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너와 나 하나일 때만 대비심"

· 1933년 전남 여수 生
· 56년 서울대 사학과 졸
· 現 한국불교 법화본종 유지재단 이사장
· 동산불교대 경전연구원 교수
· 무설정사 주석

－우선 상식 수준에서 선(禪)과 교(敎)의 관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들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불교를 두 가지로 정의하자면, 먼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이로 볼 때, 교를 배제하고 불교를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스승없이 성불했다는 사람을 마구니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禪)은 착함(善)을 행한다는 것과도 통합니다. 또한 그것은 선정 바라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보시일 수도 있고, 흔들림 없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인욕이요, 정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좌선만이 선은 아닙니다. 행주좌와(行住坐臥) 즉 일상 생활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하나로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我)라고 하는 집착의 근본을 이루는 말나식(末那識)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의를 버리고 선지를 참구하라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이나 불도를 전함에 있어 교설을 따르지 않고 곧장 마음으로 전한다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는 말은 어떻게 새겨야 할지요.

▲어디까지나 그 말은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뗏목의 비유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도 너무 교설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한 데서 나온 것이지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도 사상(四相) 즉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도들에게 경전을 가르칠 때, 분별심이나 키우고 아상이나 세우려면 경전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돌뿌리 하나를 만나도 '색즉시공(色卽是空)', 나뭇가지 하나를 만나도 '공즉시색(空卽是色)'하고 염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도 의지할 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일 텐데, 어떻게 읽어야 할지요.

▲경전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글자만 보고 아는 체 하는 것은 불교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럼 참뜻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나온 말이 신독(身讀) 즉 몸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득하라는 것이지요. 경전은 결코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것이지요. 같은 의미에서 불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은 지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불교는 반야(지혜)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분별이지만 반야는 통일입니다.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는 통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일 테지만, 경전의 내용이 어려운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역 경전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번역의 문제예요. 저는 은사로부터, 모든 경전은 해탈문이다, 그러므로 경전을 번역할 때는 해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율장을 번역할 때는 화합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전 번역에 있어서는 해답을 먼저 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경전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나서 번역에 임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번역이 너무 많아요.

적어도 경전을 번역하는 사람이라면 경전을 만든 사람의 수준과 버금가야 합니다. 또한 경전 번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스크리트나 빨리어 원전과 한역 그리고 우리말의 차이, 시간과 공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고 한역만을 중시하여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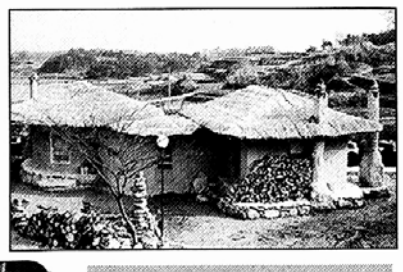
한역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경우, 한자의 뜻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예사로이 넘길 수 없는 흠을 만들어 내요.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옥편에 의존한 번역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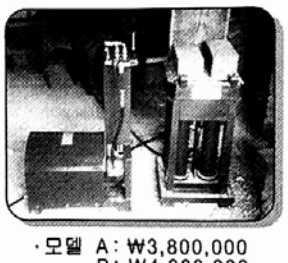
예를 들어 흔히 '번뇌를 끊어라' 하는데, 번뇌란 끊어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번뇌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을 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마왕 파순의 대화를 보세요. 파순이 어디 실제 인물입니까. 부처님 마음 속에 있는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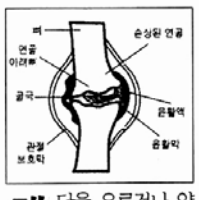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던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닳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함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